

안녕하세요.

오늘도 [3번째] 비문학으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라면을 먹거나 밥을 먹으면서도 읽을 수 있는 것이 제 칼럼입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지난 번에 여러분께 비문학 행동 강령 몇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글의 전체 대상을 찾아라.... (그것은 어디에 있나 ?)

= 첫 문단 첫 줄에 있다 !!

둘째, 각 문단 첫줄을 찾아라....(그건 왜 ?)

= 글 전체 대상을 하부 조직으로 뒷받침하면서 그 문단에서
는 작은 대상이 된다 !!

라면을 먹거나 밥을 먹으면서도 읽을 수 있는 것이 제 칼럼입니다.

제가 이 칼럼을 쓰는 목적은 해도 해도 안 되는 국어 성적을
자포자기로 넘기거나 태생의 능력부족으로 생각을 굳히고 있는
어설픈 2등급과 3-7등급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선생님 방법만이 최고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법조차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길안내 지침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급해 하지 말고,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체계를 갖추면 그 어떤 누구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남다른 내일을 맞이하려면 반드시 남다른 오늘을 보내야 합니다.

주변에 남다른 오늘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분명 남다른 어제를 보낸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역대 비문학에서 어려운 지문이라고 수만회와 오르비 댓글 중에서 뽑은 지문 중에 하나인
그레고리력을 설명하려 합니다. 쉽게 푼 학생도 있을 것이고 어렵게 푼 학생도 있겠지만 혹시나 방
법론조차 없는 친구들을 위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문 나가기 전에 한번 더....

=> 비문학을 만나면 무엇을 찾는다 ?

==> 글의 대상을 찾습니다.

=> 글의 대상은 어디에 있을까 ?

==> 첫문단 첫줄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비문학에 자신 없는 친구들을 위한 행동강령이었습니다.

자 출발합시다.

(숫자는 항상 첫줄, 둘째줄....)

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다. 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이로써 ㉠ 그레고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이듬해 춘분인 3월 21일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다. 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1. 첫줄에 글의 대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음날]이 대상은 아닐꺼고....
(흔들리지 마세요. 첫 줄에 없으면 둘째 줄에 있습니다. 의아해하지 말고 둘째로 갑니다)
2. 둘째도 좀 애매하지만 교황청의 [과감한 조치]가 바로 필자가 얘기하려는 대상 같습니다. 여기 까지 찾아냈다면 성공 (야호~~~~)

=> 이번에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비문학 독해가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은 첫 문단 첫 줄에 대상이 발견되지 않을 때입니다. 만약, 둘째 줄, 셋째 줄에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넷째 줄에 나옵니다.더 나아가 첫 문단에 없으면 둘째 문단에 나오게 됩니다.

=> 그러면 선생님 ? 넷째 줄에 대상이 나오면 1줄~3줄은 뭐죠 ?

=> 그것이 바로 전제라는 것입니다. 전제는 결론이나 대상이 나오기 위해 깔아주는 배경입니다. 예를 들어 남학생이 여학생을 꼬시기(?) 위해서는 껌도 사주고, 밥도 사주면서 영화도 보러가고 의미있는 추억을 만들기 위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때 남자의 행동을 보고 뭐라 할까요 ? (와

우.... 재는 돈이 많구나..., 와... 남을 위한 배려가 하늘만큼 넓은 애구나...
이러겠습니까 ? 아니면 저 자식... 작업하고 있구나... 하겠습니까 ?.....남학
생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 배경을 깔고 있는 겁니다. 답은 여
러분이...생략..)

=> 이 글에서는 전제가 약하게 깔린 겁니다. 즉 그레고리력이 나오기 위해 2줄
을 배경으로 깔아버린 것입니다. 날씨가 다르다? 과감한 조치였다...바로 그
레고리력이 나옵니다. 배경이 쉽게 깔린 겁니다.

3. 드디어 이제 대상이 나왔습니다. [그레고리력]

(밤과 낮의 길이차가 대상(그레고리)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4. 그레고리력은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대상의 중요 특징입니다.

==== 여기까지가 첫문단입니다. 아마 어렵지 않게 접근했을 겁
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 위에 전제가 무엇인지 배우고 갑니다...
전제가 하나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 글이지만 매 문단마다 깔린다
면 상당히 고난도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비문학 **고난도....고
난도....고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문단마다 전제가
깔린 겁니다.

그 전까지 유럽에서는 ① 율리우스력이 사용되고 있었다.
카이사르가 제정한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 제정 당시에
알려진 1년 길이의 평균값인 365일 6시간에 근거하여 평년은
365일,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은 366일로 정했다. 율리우스력의
4년은 실제보다 길었기에 절기는 조금씩 앞당겨져 16세기 후반
에는 춘분이 3월 11일에 도래했다. 이것은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 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그것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한 이유
였다.

=> 둘째 문단에서 중요한 것은 뭐죠 ?

==> 각 문단 첫줄입니다.

=> 왜 중요하죠 ?

==> 전체 대상인 그레고리력을 뒷받침하면서 2문단의 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1. 그레고리력은 얘기 안하고 율리우스력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뭘니까 ? 여학생을 꼬시기 위해 오늘은 영화를 보러 갈려고 합니다. 널 꼬신다는 말은 안하고 있죠 ? **둘째 문단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2문단에 나타난 그의 속셈을 간파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파 못하면 5등급이 됩니다. **그레고리력을 위해 나온 율리우스라는 것을 확신하고 가야 합니다.**

2. 대부분 여기서 눈이 풀리고 무너집니다. 카이사르, 율리우스, 365일 6시간, 365, 4년, 366.... (아니 이런 수능 출제자들 이런 신발들을 봤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제는 대상이나 결론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일 뿐입니다.

율리우스력 = 평년 365, 4년마다 윤년 = 36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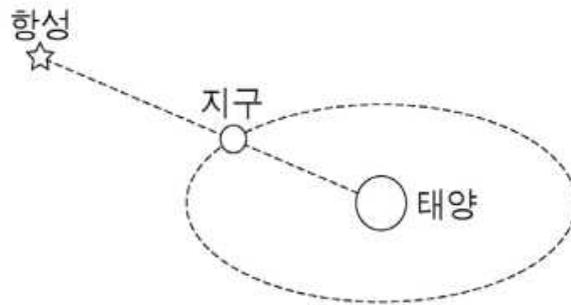
3-4. 율리우스력의 단점, 한계 = 그 중요한 부활절을 지키지 못한 일이 벌어짐

5. 화난 그레고리가 달력 바꿔 !!! 했답니다.

===== 여기까지 2문단입니다. 첫문단도 그랬고, 2문단도 전제로 출발합니다. 비문학이 약한 친구들은 이렇게 전제가 깔리면 얘기가 왔다갔다 하는 경우에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대상도 잊어버리고 그레고리인지 율리우스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 비문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지문일수록 이렇게 전제가 항상 깔려있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해서 읽으면 됩니다.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율리우스였다. 그는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체 운동을 반영하여 역법을 고안하면 일반인들이 어려워할 것이라 보고,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가 문제였다. 율리우스는 반세기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의 공전 주기인 항성년을 1년으로 본 것을 알고 있었다.



또 외칩시다. 비문학에 대한 우리의 행동강령이니까...

=> 3째 문단에서 중요한 것은 뭐죠 ?

==> 각 문단 첫줄입니다.

=> 왜 중요하죠 ?

==> 전체 대상인 그레고리력을 뒷받침하면서 3문단의 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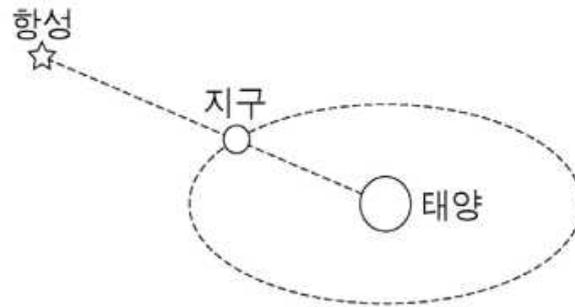
1. 이제 본 대상인 그레고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2. 율리우스는 (천문학자 방법-천체중심) 역법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만을 중심으로 1년의 길이 제안

=> 엄밀하게 말하면 이 문단의 대상은 2째줄입니다. 율리우스는 배경... 진짜 얘기하려는 이 문단의 작은 대상은 1년 길이입니다. 정리하자면 전체 대상인 그레고리력을 뒷받침하면서 이 문단에서 주된 얘기의 대상은 1년 길이 ... 즉 항성년입니다.

3. 1년의 길이는 무엇 ?

4. 릴리우스는 코페르니쿠스가 항성년(지구의 공전 주기)을 1년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안다.
릴리우스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 여기까지 3문단입니다. 은근하게 전제를 또 깔았지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항성년이 뭔지만 알면 됩니다.
릴리우스 이전에 코페르니쿠스때 1년의 길이일 뿐...



[A] 항성년은 위의 그림처럼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그러나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항성년을 1년의 길이로 삼을 수 없었다. 그는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인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항성년과 회귀년의 차이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생긴다.

1. 첫줄이 바로 항성년의 개념입니다. 앞에 나온 3문단의 작은 대상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앞에 나온 3문단의 작은 대상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앞에 나온 3문단의 작은 대상을 더 자세히 ...더 자세히...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것을 부연 상술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2. 2째줄을 보니 [그러나] 로 앞의 내용을 뒤집습니다. ?????????????? 교회의 요구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는 데에는 코페르리쿠스의 항성년의 길이가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부활절 때문에 항성년도 걸림돌을 만났습니다.

3. 그가 항성년을 1년 길이로 삼지 않은 것은 회귀년(춘분과 춘분사이) 때문이다.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년 길이로 삼지 않았다.
4. 즉 항성년이 길이가 10미터라면 춘분과 춘분사이는 늘 9미터라는 것.... 이것이 세월이 가면 매년 1미터씩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오랜 시간 뒤에는 차이가 커진다. 그래서 항성년으로 1년 길이를 정할 수 없었다는 것....

===== 이번 문단에서는 3줄과 4줄을 이해하면 모두 다 통과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이 글의 대상인 그레고리력의 탄생 배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항성년으로 1년을 정하자니 춘분과 춘분사이의 길이가 맞지 않고....

릴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 두고,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 놓은 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자고 했다. 그 값은 365일 5시간 49분 16초였고, 이 값을 채용하면 새 역법은 율리우스력보다 134년에 하루가 짧아지게 되어 있었다. 릴리우스는 연도가 4의 배수인 해를 ① 윤년으로 삼아 하루를 더하는 율리우스력의 방식을 받아들여,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으로 하는 규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1만 년에 3일이 절기와 차이가 생기는 정도였다. 이리하여

그레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새 역법은 종교적 필요를 떠나 일상생활의 감각과도 잘 맞아서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 정리해봅시다.... 이 글의 대상은 뭐죠 ?

==> 부활절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한 그레고리력입니다.

=> 중간에 율리우스력 왜 나왔죠 ?

==> 그레고리력 강조와 배경 깔려고요 !!

(부활절을 지키지 못함을 보여줌-그레고리력 부상함)

=> 그러면 부활절을 맞추기 위해서 나온 것은 ?

==> 1년 길이인 코페르니쿠스의 항성년이요....

=> 그런데 왜 항성년을 거부했죠 ?

==> 부활절을 맞추기 힘드니까요.....!!

(왜? 춘분과 춘분은 항성년보다 회귀년이 더 잘 맞아서요...)

지금까지 대충 이렇습니다. 제가 잘 못한 것은 없죠 ?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1. 각 문단의 첫줄입니다. 이 문단의 작은 대상은 알폰소 값입니다. 부활절을 맞추려면 1년 길이를 회귀년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것들의 평균값을 채택...
2. 이 값은 율리우스력보다 더 정확하고 좋다... 365일 5시간 49분 16초...
3. 그런데 계산이 잘 안 맞으니까 별의 별 함수를 조작해서 율리우스력의 장점 일부를 받아들이고 (4년마다 윤년에 하루 더함).....거기다가 100의 배수는 평년으로.....400의 배수는 다시 윤년으로..... (엄청난 함수를 적용함.... 그레고리도 꽤 고생했군...)
4. 그래서 1만년에 3일의 차이.... (그레고리 수고했다)
5. 그리하여 그레고리, 아니 그레고리력은 뛰어난 달력이 되었다.
6. 그리하여 그레고리력은 오늘날까지 훌륭한 달력이 되었다.

==== 이해되세요 ? 이렇게 대상을 찾아 그 하부 조직을 잘 파악해보면 전체 대상을 향해 하나로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날씨가 안 맞고 절기와 절기가 안 맞으니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킬 수 없어서 그레고리가 화나서 달력을 바꾸라고 했고...

그때까지는 율리우스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율리우스가 총대매고 항성년과 회귀년에서 고민하다가 부활절에 맞는 것은 항성년보다 회귀년이 더 맞는 것 같아서 그것으로 귀착하고 회귀년 평균값

(알폰소값)으로 달력을 만들었는데 이게 134년만 맞는겁니다.

그래서 온갖 자기만의 함수로 꼼수를 부려서 지금의 그레고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최고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솔직히 이정도의 내용은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이정도 파악이 아니라면 그 친구는 지문과 문제를 왔다갔다하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로 갈까요 ?

3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 ① 두 역법 사이의 10일의 오차는 조금씩 나누어 몇 년에 걸쳐 수정되었다.
- ② 과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법 개혁안이 권력에 의해 강제되었다.
- ③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역법 개혁안을 마련했다.
- ④ 릴리우스는 천문 현상의 원인 구명에 큰 관심을 가졌다.
- ⑤ 그레고리력이 선포된 시점에는 지동설이 지배적이었다.

① 첫문단 첫줄에서하루 만에 패스

② 왕이 부활절 안 맞으니까 화나서 고쳐라...했음.

③ 4문단에 교회의 요구에 따라

④ 5문단에서 첫줄에 보면 항성년과 회귀년의 차이에 대한 원인 논쟁을 접는다.....

⑤ 지동설 무시, 천동설 우대

답은 3입니다.

비문학 1개월 / 문학 1.5개월 / 화법-작문-문법 1개월 / 실전 문제 풀이 0.5개월

4개월 후에 3-5등급 ==>> 1등급으로 상승합니다. 수업문의 언제나 환영합니다.

komusso@hanmail.net / 카톡아이디 komusso / 02)2051-2727 대치 이룸학원

33. 위 글과 <보기>를 함께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만든 역법인 음력에서는 30일과 29일이 든 달을 번갈아 써서, 평년은 한 해가 열두 달로 354일이다. 그런데 이것은 지구의 공전 주기와 많이 다르므로, 윤달을 추가하여 열세 달이 한 해가 되는 윤년을 대략 19년에 일곱 번씩 두게 된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역법을 만들고 대략 15일 간격의 24절기를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 놓음으로써 계절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역법을 ‘태음태양력’이라고 한다.

- ① 부활절을 정할 때는 음력처럼 달의 모양을 고려했군.
- ② 동서양 모두 역법을 만들기 위해 천체의 운동을 고려했군.
- ③ 서양의 태양력에서도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고려했군.
- ④ 그레고리력의 1년은 태음태양력의 열두 달과 일치하지 않는군.
- ⑤ 윤달이 첨가된 태음태양력의 윤년은 율리우스력의 윤년보다 길겠군.

문제에 나오는 보기 내용에도 대상이 있습니다.

첫줄을 보면 보름달 역법 즉 음력입니다. = 1년 354일

그런데 지구 공전 주기와 다르고, 윤달인 13월이 19년에 7번... (즉 윤년이 19년에 7번이니까 대략 2.7년마다 윤년?.....복잡하다....)

동양에서는 음력인 이걸 쓴다. 거기다가 15일 간격의 24절기(태양의 움직임)를 함께 쓴다. (동양은 상당히 더 복잡하군... 음력에다가 태양까지 더해 서 쓰니....)... 그 이름은 태양 태음력

- ① 부활절을 정하는 것은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 (달이 필요하니까 음력)
- ② 서양 율리우스력은 태양력 그레고리력은 율리우스 따라서 태양의 운동을 기준으로 하는 1년 길

이 제안...동양은 보름달 역법....따라서 동서양 모두 천체를 기준으로...

③ 서양에서의 태양력은 그냥 태양력임....율리와 그레고리력은 태양력이다. 서양에서 부활절로 정한 원칙이 춘분을 지나 첫 보름달일 뿐이지.... 그것은 태양력과 전혀 상관없고 서양 교회의 부활절과 관련될 뿐임...(그냥 교회에서 정한 원칙이지 달력은 아님)

④ 태음태양력은 354일, 그레고리력은 365일 5시간....

⑤ 19년에 7번이면 2년 반? ...여러분이 계산.... 율리우스 4년...

답은 3번

34. ㉠과 ㉡을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서 서기 1700년은 모두 윤년이다.
- ② ㉠은 ㉡보다 더 정확한 관측치를 토대로 제정되었다.
- ③ ㉠을 쓰면 ㉡을 쓸 때보다 윤년이 더 자주 돌아온다.
- ④ ㉡은 ㉠보다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다.
- ⑤ ㉡은 ㉠보다 나중에 제정되었지만 더 보편적으로 쓰인다.

㉠ = 그레고리력 / ㉡ = 율리우스력

- ① 율리우스는 4년마다 윤년이니까 1700 윤년 / 그레고리력은 4의 배수는 윤년이되 100의 배수는 평년이니까 결국 평년
- ② 율리우스가 안 맞아서 그레고리가 나온 것입니다. ###
- ③ 4의 배수중에서 100의 배수는 평년이 되니까... ㉡ 이 더 많다.
- ④ 5문단 끝부분에서 그레고리가 절기에 더 잘 맞는다...
- ⑤ 서로 바꿔 설명

비문학 1개월 / 문학 1.5개월 / 화법-작문-문법 1개월 / 실전 문제 풀이 0.5개월
4개월 후에 3-5등급 ==>> 1등급으로 상승합니다. 수업문의 언제나 환영합니다.
komusso@hanmail.net / 카톡아이디 komusso / 02)2051-2727 대치 이룸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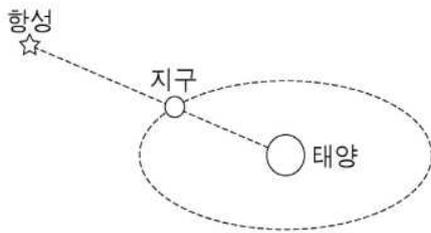
35. [A]를 이해하기 위해 <보기>를 활용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시에 있는 원형 전망대 식당은 그 식당의 중심을 축으로 조금씩 회전한다. ㉠ 철수는 창밖의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식탁에서 일어나 전망대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창가를 따라 걸었다. 철수가 한 바퀴를 돌아 그 식탁으로 돌아오는 데 ㉡ 57초가 걸렸는데,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위치까지 돌아오는 데에는 ㉢ 60초가 걸렸다.

- | | ㉠ | ㉡ | ㉢ |
|---|----|-----|-----|
| ① | 항성 | 항성년 | 회귀년 |
| ② | 항성 | 회귀년 | 항성년 |
| ③ | 지구 | 회귀년 | 회귀년 |
| ④ | 지구 | 항성년 | 회귀년 |
| ⑤ | 지구 | 회귀년 | 항성년 |

결국 항성년과 회귀년 설명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말한 항성년의 길이는 1년에 10미터이고 회귀년(춘분과 춘분까지의 거리)은 9미터라고 위에서 말했죠... 그래서 철수는 엄밀히 말하면 1미터 더 걸어가야 합니다.



항성은 고정되어 있는 폭포입니다.
태양은 식당의 중심축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철수는 지구입니다.

그런데 항성년은 평상시대로 1년 길이대로 도는데(10미터 이동),
1년 길이(그런데 춘분과 춘분이 안 맞음)...

그래서 항성년보다 짧은 회귀년으로 1년 길이 제안...

그러면 철수는 지구 = 이상없죠 ? 도는 애니까...

57초는 짧은 거니까 당연히 회귀년 (춘분과 춘분까지의 거리)

60초는 긴 거니까 항성년

(매년 이 3초 때문에 부활절이 안 맞아서 알폰소 찾아감)

답은 5번...

36. ㉠의 ‘으로’와 쓰임이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이 안경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가볍다.
- ② 그 문제는 가능하면 토론으로 해결하자.
- ③ 그가 동창회의 차기 회장으로 뽑혔다.
- ④ 사장은 간부들을 현장으로 불렀다.
- ⑤ 지난겨울에는 독감으로 고생했다.

답은 3번.... 패스...

자 오늘도 큰 대상과 작은 대상들간의 유기적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문단여행을 떠났습니다.

중간에 큰 대상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놈은 전제라는 놈이구나...

우리를 헛갈리게 만드는 놈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볍게 읽어주면 됩니다.

결국 그레고리력 얘기이고

절대로 그 대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한 편의 글은 특히 국가고시에 선택된 지문은

그만큼 완성도가 높은 지문들입니다.

도움 되었습니까 ? 답변은 댓글로....^&^

비문학 1개월 / 문학 1.5개월 / 화법-작문-문법 1개월 / 실전 문제 풀이 0.5개월
4개월 후에 3-5등급 ==>> 1등급으로 상승합니다. 수업문의 언제나 환영합니다.
komusso@hanmail.net / 카톡아이디 komusso / 02)2051-2727 대치 이룸학원